

뉴스홈 | 최신기사

## [우크라 침공] 러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미, 뒤늦은 후회"

송고시간 | 2022-02-24 18:19

이의진 기자  
기자 페이지

우크라, 미국에 첨단 방공망 지원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전·현직 관료들 "러시아에 첨단 무기 넘어갈까봐 주저"



러시아 침공 개시 후 검은 연기 치솟는 우크라 군공항

(하르키우 AF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러시아명 하리코프) 인근 추기예프 군 공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2.2.24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24일(현지시간) 개시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여러 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의 '오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미 NBC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크림반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완패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 무장을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런 서방의 첨단 핵심 전략 자산이 자칫 러시아 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지 의심해 지원을 주저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반발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였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러시아로서는 모스크바에서 1천km도 떨어지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첨단 미사일이 배치되는 상황은 '악몽'에 가깝기 때문이다.

NBC방송은 이같이 미국이 주저하다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는 첨단화에 실패했고 결국 이날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게 미국 등 서방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군이 지상군 투입에 앞서 상대를 미사일과 포격으로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된 흔적"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복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먼저 제압하는 작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첨단 방공체계  
계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 방침을 재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3~2016년 나토군 최고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나토와 당시 연루됐던 개별 각  
국은 기회를 놓쳤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빠르게 했다면 현재 이 지경  
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림반도 사태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공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참모진에게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수장 존 브레넨은 미국은 이런 무기가 러시아의 손아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2015년 2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무장 지원하면 그게 적절히 사용될 것이라  
보장할 수 있나. 이런 무장이 다른 세력에게 넘어가 악용되거나,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공격적 행동을 초  
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고 되물기도 했다.

그는 이런 무장 지원보다는 경제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라 봐 우크라이나에 방공체계가 아니라 야간 투시경과 방호복 정  
도만 지원했다.



#### 러시아 침공 개시 후 불길 치솟는 우크라이나 남부 군사시설

(마리우폴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공항 인근  
군사시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2.24 leekm@yna.co.kr

비영리 연구기관인 CNA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먼은 당시에는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지라도 이후  
몇 년이 지나는 사이 추가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전차 미사일인 '재블란'을 제공하긴 했지만, 끝내 대공방어  
체계는 내놓지 않았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도 굼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티브리디스 전 최고사령관은 미 정보기관들이 이미 6개월 전 러시아가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 시점  
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패트리엇 미사일 등 첨단 방공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간 그들의 손에 적절한 무기를 쥐여주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한 우려로 방공 체계 현대화에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NBC방송은 해석  
했다.

지난달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비공개 의회 브리핑에서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첨단 무기를 제대로 수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용할 여량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튜브로 보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소식통들은 정부가 이런 지원책이 러시아를 자극할까봐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체계는 옛 소련의 무장을 근간으로 한다. 낙후된 만큼 전자 교란 공격에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발트 3국에서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를 지원받았지만, 이 역시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미국이 반군 무자헤딘에 제공한 무장일 정도로 구식이다.

미 싱크탱크 실버라도 폴리스 액셀러레이터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러시아가 전면 침공에 앞서 대규모 공습과 탄도 미사일을 앞세울 것이라 예상하며 "우크라이나는 이런 무장에 대항할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에 공수된 미제 스팅어 미사일

(키예프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공항에서 리투아니아로부터 공수된 미제 FIM-92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스를 트럭으로 옮기는 모습. 2022.2.14 jsmoon@yna.co.kr

pual07@yna.co.kr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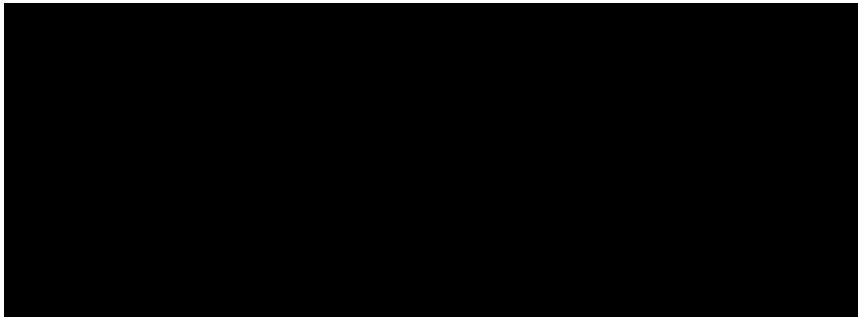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5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6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6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로 보기

🔗 관련기사

- [우크라 침공] 우크라이나 핵무장? "푸틴, 침공 정당화하려 음모론까지"
- [우크라 침공] 유가-물가 전방위 압박 우려...러시아 제재 확대시 타격 커질듯
- [우크라 침공] 마크롱 "전쟁 결정한 러시아 강력 규탄"
- [우크라 침공] 국내 금융시장 흔들..."최악시 코스피 2,500 하회 가능성"
- [우크라 침공] 러 우방 벨라루스도 긴박...대통령, 군 수뇌부 긴급회의 소집
- [우크라 침공] 러, 동-남-북 3면으로 공격...지상군 진입(종합2보)
- 문대통령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유감...경제제재 동참할 것"(종합)
- [우크라 침공] 중국 "각국 자제...대화와 협상 노력해야"(종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18:19 송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방공체계](#) [#지대공미사일](#)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목인체 두 눈만 열쫓벌동...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나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메일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생활문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세관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